



큰폭 성장 불구 이익률은 감소

평균 GDP 상회하며 5~6% 성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쇄 잉크 산업은 험난했던 경제 여건을 이겨내며 경기회복의 신호를 속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재료가 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이익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니폰잉크케미컬(Dainippon Ink Chemical : DIC)의 아시아태평양 그룹 마케팅 관리자 히사토 타네무라는 “이 지역 인쇄 잉크 산업은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과 ‘사스’ 여파로 야기된 경기불황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2004년 전반기 인쇄잉크 산업은 대체로 좋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면서 원유 가격 폭등과 솔벤트 가격 급등에 따라 이익률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한 유로화와 엔화의 평가 절상은 원재료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상당히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쇄 잉크 산업은 지난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플린트잉크의 플린트잉크아시아 사장인 헨리 레옹은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인쇄 잉크 시장은 약 5~6% 성장하면서 2004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다”라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이 핵심 시장

마이크로잉크(Micro Inks Ltd.)사의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부문 제너럴 매니저인 코우마라 라드자는 “인도와 중국이 이 지역 핵심 국가이며 인쇄 잉크 산업은 유럽 및 미국 지역과 비교해 매우 잘 성장했다. 인도와 중국의 놀랄 만한 GDP 성장률은 인쇄업과 인쇄용 잉크 산업의 성장 분위기에도 영향을 줬다. 인도와 중국의 인쇄 잉크 산업 성장률은 7~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4/4 분기 GDP 성장률은 9.25%였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7%를 넘는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DIC의 타네무라는 “2004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약 6%였지만 인쇄 잉크 산업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포장과 신문인쇄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는 물론이고 태국과 베트남도 매우 큰 성장세를 보였다.

플린트잉크아시아의 레옹 사장은 “지난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약 10%에 달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베트남 인쇄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끈다”고 전했다.

일본, 운전은 성장 매업은 주춤

성장세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조금 복잡하다. DIC의 타네무라는 “일본 경제와 운전 오프셋 인쇄 시장의 회복세는 주로 신문 삼지와 무료 신문시장을 통해 관측할 수 있으며 2004년에 조금 성장했다”고 밝힌 후 “그러나 매업 인쇄 시장은 2004년에 전반적으로 2~3% 정도 위축된 가운데 액체 잉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사카타인스코퍼레이션(Sakata INX Corp.)의 국제운영 부문 책임자인 토시유키 사와다는 “일본에서는 상업용 인쇄물 시장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다. 그런데 음료 캔에 인쇄되는 금속 인쇄들이 PET병과 같은 그라비어 인쇄로 많이 대체됨에 따라 금속 인쇄는 줄었으며 연포장과 같은 그라비어 인쇄는 증가했다”고 전했다.

호주, 호호 속에 환율 상승 여파 있어

지난해 호주의 인쇄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호주달러의 평가절상 등에 따라 어려운 부분도 감지됐다.



대체적으로 윤전 시장은 핏셋은 Toyo, 핏셋과 콜드셋은 Flint Ink, 콜드셋은 Coates가 주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엽인쇄와 윤전인쇄 잉크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공급업체들은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확실히 획득할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떠오르는 지역 이슈 : 환경 규정

무톨루엔 · 무MEK 잉크 수요 증가

지금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만큼 엄격하지는 않다고 할 지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규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DIC의 타네무라는 "공장의 오염물 방출에 대한 환경 규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 걸쳐서 점점 더 엄중해 지고 있지만 일본과 호주를 제외하면 VOC 제한과 같은 인쇄잉크 규정은 아직은 그리 엄격한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Nestle와 P&G와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지역 인쇄업체들이 그들 고유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포장과 담배인쇄 등에서는 무톨루엔과 무MEK(메틸에틸케톤) 잉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무톨루엔과 무MEK 잉크는 그리비어 인쇄에서의 사용 요구가 특히 높다.

플린트잉크아시아의 레옹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08년 올림픽 경기와 관련,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환경적인 이슈에 더욱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 동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고객들은 포장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출판분야에서도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잉크에 대한 문의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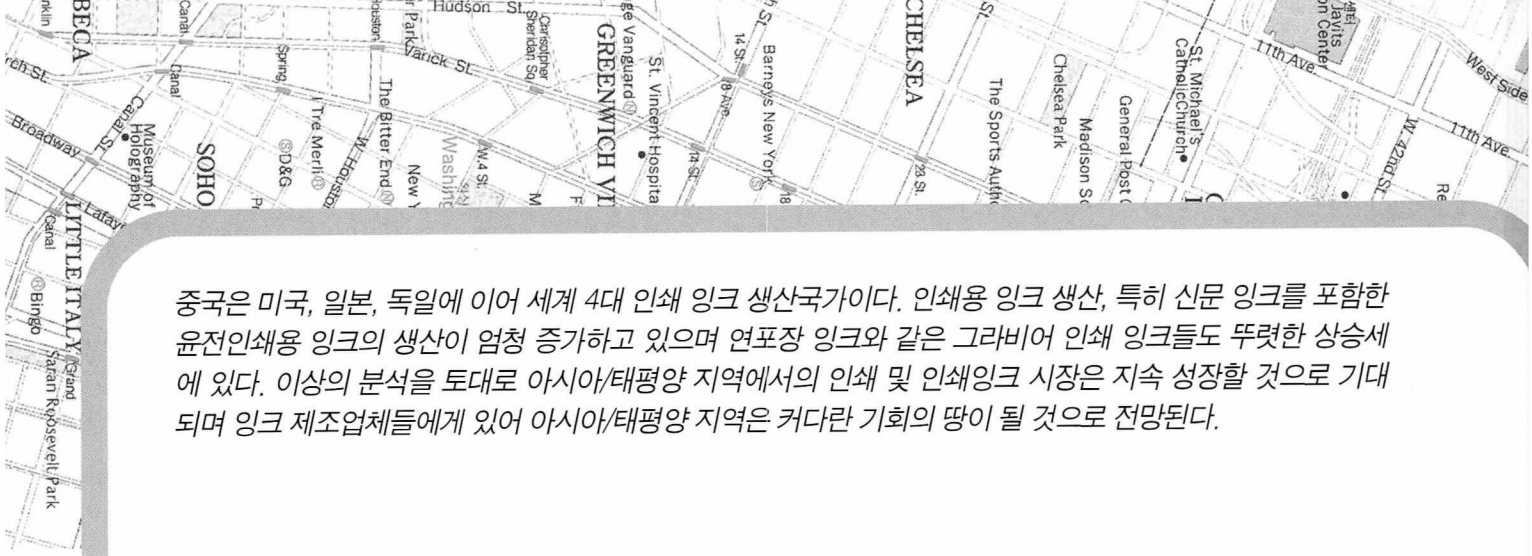
마이크로잉크의 라드자는 "지난 1년간 호주의 인쇄 산업은 매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과 같은 더욱 경제성이 높은 해외 시장에 많은 인쇄작업을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향은 몇몇 중견 인쇄업체들에게 영향을 줬으며 인수합병 사태를 이끌었다. 또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 인쇄업체들이 끊임없이 소규모 인쇄업체기들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지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중견 인쇄업체들은 비용 효율적인 소규모 인쇄업체들과 강한 경쟁력의 대형 인쇄업체들 사이에서 커다란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DIC의 타네무라는 "1년 동안 호주 달러화의 평가 절상 때문에 인쇄 산업은 인쇄 작업 일부를 해외로 빼앗겼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쇄산업은 2004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매엽인쇄 시장은 5% 이상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유통 단계의 변화 불러와

마이크로잉크의 라드자는 이 지역에서는 매엽인쇄의 치열한 경쟁때문에 잉크 공급업자들이 특히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엽인쇄 시장은

Hostmann Steinberg, Sakata, T&K Toka, Micro Inks, Inctec, Flint와 같은 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몇몇 업체와 함께 DIC, Toyo, SICPA에 의하여 주도됐다. SICPA는 Flint Ink로 윤전 사업을 이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SICPA가 담당하던 여러 큰 작업들을 Flint Ink가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윤전 시장은 핏셋은 Toyo, 핏셋과 콜드셋은 Flint Ink, 콜드셋은 Coates가 주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엽인쇄와 윤전인쇄 잉크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공급업체들은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획득할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는 유통 경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Hostmann Steinberg는 CPI에서 Ferag로 이동했고 Ferag는 Toyo에 대한 대량 고용을 포함해 잉크 사업 지원 등 인프라 설립에 많은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라드자는 "프레스, 프리프레스 분야에서 증가된 자동화 추세는 업계내에서 철칙으로 받아들여졌다"라며 "몇몇 업체에서는 완전 자동 전산화 10/12색 매엽인쇄 기계들이 설치됐으며 많은 업체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대 인쇄 잉크 생산국가이다. 인쇄용 잉크 생산, 특히 신문 잉크를 포함한 운전인쇄용 잉크의 생산이 엄청 증가하고 있으며 연포장 잉크와 같은 그라비아 인쇄 잉크들도 뚜렷한 상승세에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쇄 및 인쇄잉크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잉크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커다란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는 이를 위한 캡 시스템이 도입됐다. 운전 오프셋 인쇄 시장에서는 핫셋 및 콜드셋 인쇄기들이 드루파 기간 혹은 그 후에 중대한 투자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독해력 · 삶의 질 향상이 발전 동력

경제 여건 호전과 개선된 생활 수준은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하는 인쇄 수요를 이끈다. DIC의 타네무라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에서 계속된 삶의 수준 향상이 특히 매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인쇄 분야에 커다란 성장세로 이어졌다. 또한 중국은 수출의 증가로 인쇄 잉크에 대한 많은 수요를 창출했다.

마이크로잉크의 라드자에 따르면 이 지역 인쇄 잉크 시장에서 성장세를 기록하는 3개의 주요 요인은 인쇄 미디어의 증가, GDP 및 경제여건의 성장, 포장에 대한 보다 확대된 수요 등이다.

각각 13억과 11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는 문자 해독 능력과 동시에 인쇄 매체의 증가를 경험했다. 라드자는 "문자 해독 능력의 성장률은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할 지라도 눈부실 정도이다"라며 "엄청난 인구의 크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은 인쇄 매체에 노출되며 독자들의 수와 인쇄 매체의 수가 함께 증대한 것이다"고 말했다.

라드자에 따르면, 인도는 통합 1억 4200만의 인쇄물이 21개의 언어로 쓰

여져 5600개 이상의 일간신문, 1만5천 개 이상의 주간지, 2만개 이상의 정기간행물로써 보급된다. 또한 인도는 거의 325개 언어들이 통용되며 그중 18개는 공식언어로 인정받고 이 외에도 1600개 이상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다.

라드자는 "GDP의 증대가 포장 산업의 성장을 통해 전반적으로 인쇄와 인쇄잉크 산업의 번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빠른 변화를 보이는 소비자 상품 산업은 신문의 페이지 수 증가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광고 소비도 늘렸다"고 말했다.

중국, 포장과 출판 분야가 주도

중국의 잉크 제조업체들에게는 특히 포장과 출판 부문이 기회로 여겨진다.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인쇄 산업은 1999년 이래로 연간 10%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중 포장산업은 연간 10%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5년에는 거의 1천억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문 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2005년에는 거의 250만 톤의 신문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교과서의 컬러화도 잉크의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플린트잉크아시아의 레옹 사장은 "중국에서 인쇄용 잉크 산업의 성장은 출판 영역과 포장분야를 축으로 이뤄진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포장산업에

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출판의 성장은 농촌 인구의 빠른 도시화로써 문자 해독능력이 있는 인구가 두 배로 불어날 정도로 출판이 성장하고 있으며 포장산업도 지난해에 11~12%의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DIC의 타네무라는 "중국 경제는 2004년에도 멈춤 없이 성장했으며 인쇄 및 인쇄용 잉크 시장은 약 11% 증가했다"고 밝힌 후 "그러나 큰 폭의 유가 상승과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인쇄 잉크 산업의 수익률은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사카타잉스코퍼레이션의 사와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대 인쇄 잉크 생산국가이다. 사와다는 "인쇄용 잉크 생산, 특히 신문 잉크를 포함한 운전인쇄용 잉크의 생산이 엄청 증가하고 있으며 연포장 잉크와 같은 그라비아 인쇄 잉크들도 뚜렷한 상승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골판지 인쇄와 연포장을 포함하는 포장은 최대의 성장률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각 업체들의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쇄 및 인쇄잉크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잉크 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커다란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갑준 차장〉